

미켈 컴퍼니사에서 수입하는 인쇄용 약물이 주력이다. 요즘은 CTP판재 클리너가 인기를 끌고 있어 이의 판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KIPES 등 각종 전시회 정기적 참가

대한피엠아이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인쇄관련 전시회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사의 신제품과 주력 제품군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입판매를 주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전시회는 고객을 확보하고 회사를 홍보하는 매체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전시회를 참가하면서 고객들에게 유용한 신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인쇄산업의 규모를 감안, 전시회의 기간이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국내 인쇄산업의 규모가 커져서 인쇄관련 전시회가 보다 많아지고 규모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친환경과 생산성 초점 맞춘 신제품 공급

아직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인쇄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점차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무습수인쇄에 대한피엠아이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미 주요 해외 거래처인 ABC케미컬 컴퍼니(영국)로부터 이미 무알콜습수액인 All Star Fount를 도입, 공급하고 있다. All Star Fount는 전 유형의 프레스에 적합하게 설계된 원 스텝 알콜 대체용 파운틴 솔루션으로 잉크 피드백과 필링을 최소화, 고장을 크게 줄였다.

또한 생분해성을 갖추고 있으며 소포제, 부식 억제제, 방부 및 항균 성분을 갖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UV/EB를 비롯, 전체 오프셋잉크에 적합한 모든 유형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효과적인 광역 생분해성이 들어 있다. 급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레이저 샵 리버스와 청결한 스크린이 갖춰져 잉크 트래핑을 개선한다. 일반적인 사용기준은 물 1리터당 2~4%이다.

또한 금잉크 개발을 위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평평이 나 있는 Wolstenholme's Unipak SuperLitho를 공급, 특수인쇄 및 후가공 작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품질 포장지와 고속 인쇄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엽식 인쇄를 위한 메탈릭 잉크인 Unipak SuperLitho는 꾸준한 연구 및 개발의 성과물로 고속인쇄, 인쇄 품질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한편 특수효과잉크인 Mirasheen도 잉크덕트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매엽용 인쇄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금속 진공도료 기술을 바탕으로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지만 이에 걸맞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제품들은 대한피엠아이에 갖고 있는 원칙인 제품의 우수성, 생산성, 사용의 편의성 등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고객에게 공급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20여년의 짧지 않은 연륜을 쌓은 인쇄기자재 공급사인 대한피엠아이는 항상 고객에게 적합하고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그래서 탄탄한 입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를 읽고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제안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대한피엠아이는 앞으로 오랫동안 인쇄기자재 부문의 특급 파트너로 함께 할 것을 꿈꾸는 기업이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대한피엠아이에에서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인쇄용 케미컬과 자재들

